

제1 교시

국어 영역

[1 ~ 3] 다음은 학생이 과제 수행 후 실시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대화의 원리' 중 '협력의 원리'에 대해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협력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는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대화의 원리 중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란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체면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 주장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공개적인 자아의 모습을 뜻하는데, 체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적극적 체면은 상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집단 안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극적 체면을 세워 주는 방법에는 상대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어달리기 우승팀의 마지막 주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팀원이 여러분께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네가 우리 팀 마지막 주자라서 정말 든든했어."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청중을 둘러보며) 네, 다들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이 발표가 바로 여러분의 적극적 체면을 세워 드린 것입니다.

둘째, 소극적 체면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 의해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극적 체면을 지켜 주려면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을 쓰거나 상대에게 부담을 준 것을 사과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온 친구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만약 그 친구가 사과하지 않았다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청중을 둘러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가 소극적 체면을 지켜 준 것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인정받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 간섭받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과 관련된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 주신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여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며 청중의 반응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④ 최신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이론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개념어를 제시하여 그 용어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도입]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언급하고, 화제가 '체면 유지의 원리'임을 밝혀야겠어.
- ② [전개]
 - '체면 유지의 원리'와 '체면'의 개념을 각각 언급해야겠어.
 - 체면을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를 제시해야겠어.
 - 발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발표의 객관성을 확보해야겠어.
- ③ [정리]
 -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청중에게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3. <보기>는 위 발표 후 이어진 수업 내용의 일부이다. ㉠과 관련해 [A]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공손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 상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네요. 소극적 체면은 종결 어미, 보조 용언,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부사어 등을 적절히 선택하여 지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는 '동아리방 청소를 하자'라는 문장에 다양한 표현을 더해, 상대의 부담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 사용된 문법 표현을 분석해 볼까요?

- ㉠ 동아리방 청소를 해 볼까?
- ㉡ 동아리방 청소를 같이 할래?
- ㉢ 동아리방 청소를 간단히 해 두자.
- ㉣ 시간이 괜찮으면, 잠깐 동아리방 청소를 하자.

학 생 : 소극적 체면을 지켜 주기 위해, _____ [A]

- ① ㉠은 ㉣와 달리 보조 용언을 활용하고 있어요.
- ② ㉡는 ㉠와 달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 ③ ㉢는 ㉠와 달리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고 있어요.
- ④ ㉠와 ㉣ 모두 부사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 ⑤ ㉡와 ㉢ 모두 보조 용언을 활용하고 있어요.

[4 ~ 6] 다음은 방송부 회의 중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방송부장: 오늘 방송부 회의 안건은 ‘학교 홍보 영상 내용 구성하기’입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잘 드러나도록 홍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부원 1: 학교 홍보 영상 내용으로 우리 학교의 자랑인 동아리 활동은 어떨까요? 동아리 부원들의 동아리 소개와 실제 활동 모습을 담는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 주어 홍보 효과가 클 것입니다.

부원 2: 하지만 모든 동아리를 소개하기엔 시간적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부원 3: 맞습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하는 동아리만 소개하면, 전체 영상의 분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담을 때, 촬영 구도나 기법도 고려하면 좋겠어요.

방송부장: 학교 누리집에도 탑재할 영상이니 전체 영상 분량은 선생님께 여쭙본 후 다음 회의 때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원 2: 학교 홍보 영상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다른 것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사제동행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므로, 선생님과 함께하는 체육 한마당과 쓰레기 줍는 플로깅 활동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A] 조사해 보니, 사제 플로깅 활동은 지역 신문에까지 여러 차례 소개되어 활용할 자료가 많더라고요.

부원 4: 동아리 활동과 사제동행 활동을 학교 홍보 영상에서 보여 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잘 드러나도록 하려면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모습도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찍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때 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학교의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함께 보여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방송부장: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촬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원 4: 네. 우리 학교 드론 동아리에 촬영을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부원 1: 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촬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방송부 외에 다른 학생들도 영상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부장: 지금까지 영상에 담은 내용으로 학생 동아리 활동, 체육 한마당, 플로깅 활동, 일상적인 학교생활 모습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원 3: [가]

방송부장: 영상 시청자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영상 제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생각하셨군요.

4. 위 회의에 나타난 ‘방송부장’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원이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② 회의의 안건과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③ 부원의 의견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질문하고 있다.
- ④ 회의 중 다음 회의 때 논의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 ⑤ 회의의 안건에 대해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원 1’은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② ‘부원 3’은 ‘부원 2’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부원 2’는 추가할 내용을 제안하며 조사한 자료를 언급하고 있다.
- ④ ‘부원 4’는 ‘부원 2’의 의견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 ⑤ ‘부원 1’은 ‘부원 4’가 제시한 방안이 가치 있음을 언급하며 동의하고 있다.

6. <보기>는 ‘부원 3’이 회의를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가]에 제시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자료 1] 작년 우리 학교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중 일부

1. 자녀의 학교생활 중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단위:%)

교실 수업(35)	친구 관계(30)	동아리 활동(17)	...
-----------	-----------	------------	-----

2. 학교 행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단위:%)

공개 수업(41)	명사 초청(30)	사제 플로깅(26)	...
-----------	-----------	------------	-----

[자료 2] ‘영상 촬영 기법’을 검색한 후 기록한 메모

- 시점 샷(포인트 오브 뷰 샷):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그 인물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 몰입감을 높임.
- 타임랩스: 오랜 시간 동안 변하는 장면을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하는 빨리 감기 촬영 기법으로 시간의 흐름을 극적으로 표현함.
- 아웃포커스: 특정 대상만 선명하게 나타내며 배경은 흐릿하게 보이게 하는 촬영 기법으로 대상에 대한 집중도를 높임.

[자료 3] 학교 홍보 영상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읽게 된 신문 기사

A 지역 B 대학교는 학교 홍보 영상에 외부인 C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초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C 씨는 “영상 촬영이나 공개에 대한 동의도 없이 내 얼굴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률상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① 학부모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명사 초청 행사에서 특히 호응이 좋았던 장면을 위주로 편집하여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 논란이 없도록 동의를 받은 후, 점심 시간에 친구들과 즐겁게 대화하고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 ③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웃포커스 기법을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교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 ④ 사제 플로깅을 타임랩스 기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의 모습을 부각해 몰입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⑤ 학부모의 관심도를 고려해,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각에서 공개 수업을 시점 샷으로 촬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사자들에게 촬영 및 공개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수사는 체언으로,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수 관형사는 수식언으로, 체언 앞에서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수 관형사와 달리 수사는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 다섯 친구가 회의를 했다.
· 나는 사과 하나를 받았다.
· 나는 과자 두 봉지를 샀다.
· 내 나이는 올해 열일곱이다.

- | | 수사 | 수 관형사 |
|---|------------|-----------|
| ① | 다섯, 하나 | 두, 열일곱 |
| ② | 열일곱 | 다섯, 하나, 두 |
| ③ | 하나, 열일곱 | 다섯, 두 |
| ④ | 다섯, 두 | 하나, 열일곱 |
| ⑤ | 다섯, 두, 열일곱 | 하나 |

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며,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안긴문장은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안은문장 내에서 특정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 ㉠~㉣에서 안긴문장을 분석해 보자.

㉠ 배려심이 깊은 철수는 키가 크다.
㉡ 친한 동생이 체육관에 오기로 했다.
㉢ 그는 똑똑한 친구들과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 ① ㉠에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② ㉡에는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③ ㉢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다.
- ④ ㉠에는 ㉢과 달리 서술절이 있다.
- ⑤ ㉠, ㉡, ㉢ 모두 관형절이 있다.

9. <보기>의 ㉠과 ㉡의 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 <보 기> —

어근과 어간은 혼동하기 쉬운 문법 용어이다. 어근은 단어의 형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실질적, 중심적 의미를 띠는 부분이고, 어간은 용언의 활용과 관련되는 것으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놀다’는 ㉠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는 경우로 ‘놀-’은 어근이면서 어간이다. 그러나 ‘덧붙이다’는 ㉡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어근 ‘붙-’의 앞뒤에 접사 ‘덧-’과 ‘-이-’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간은 ‘덧붙이-’이다.

- | | ㉠ | ㉡ |
|---|------|------|
| ① | 기르다 | 기쁘다 |
| ② | 치솟다 | 견주다 |
| ③ | 구기다 | 휘감다 |
| ④ | 알리다 | 새롭다 |
| ⑤ | 맞바꾸다 | 되살리다 |

10.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의 변동이라고 한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겨나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단어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맨입[맨닙]’은 첨가가 일어났군.
- ② ‘닭장[닥짱]’은 탈락과 교체가 일어났군.
- ③ ‘집일[짐닐]’은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군.
- ④ ‘꽃향기[꼬탕기]’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났군.
- ⑤ ‘넓히다[널피다]’는 탈락과 축약이 일어났군.

[11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의 전반을 ㉠ 관리하는 선거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부형과 독립형으로 분류한다.

먼저 정부형은 행정부에 소속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형태이다. 선거관리기관의 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해당 부처 담당자가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때 예산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포함된다. 반면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이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기관의 위원은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 임기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선거공보의 접수·심사·발송과 투·개표소 운영을 포함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면 국회는 이를 ㉢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것은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의 원칙에 ㉣ 입각한 것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관한 공직선거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 등을 ㉤ 관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관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추천인, 법관, 교육자 등으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지니므로 임기 6년 동안은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법관 출신이 호선*되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 전반에서 법률 해석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모든 위원은 선거와 관련된 이익제기 및 각종 사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는데, 만약 그 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 호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 가부동수: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한 상태.

(나)

㉥ 선거공보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각 재산상황, 체납실적과 병역사항,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공약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선거공보는 책자형으로, 법정 기한 내에 온라인 또는 우편의 방식을 선택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유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법정 규격과 면수 등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주로 심사한다. 하지만 공약의 현실성은 검열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이 게재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수사기관 등에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와 관련된 증명 서류를 후보자 본인과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후보

자 본인이나 이의 제기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내용이 거짓 사실로 ㉦ 판명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투표소 등에 공고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선거공보에 다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고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에 따르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게재하지 않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하면 해당 선거공보는 접수가 거부된다.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고지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후보자와 무관한 독립적인 생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지거부'로 기재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나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사유로 병역의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사항 및 그 사유를 공개 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 등의 재산상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직계존·비속: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과 비속(자녀).

* 적시: 지적하여 보임.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유형을, (나)는 선거공보의 게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도입 배경을, (나)는 선거공보의 발송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주요 업무를, (나)는 선거공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가)는 선거관리기관의 역사적 의의를, (나)는 선거공보 배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선거관리기관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를, (나)는 유권자가 선거공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2.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관련된 공직선거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② ㉦에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된 ㉧은 후보자나 정당이 작성한 것이다.
- ③ ㉧을 각 세대에 발송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이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④ ㉧을 관리하는 ㉦을 행정부 소속이 아닌 인사로 구성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에 다른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을 적시하여 비방한 내용이 위법하다면 ㉦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13. 다음은 학생에게 제공된 학습지이다. (나)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한 학생의 판단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를 읽고 맞으면 ○, 틀리면 × 표시를 하시오.

판단할 내용	판단 결과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한다.	○	... ①
○ 재산상황을 공개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②
○ 후보자가 직계존속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고지거부'로 기재할 수 있다.	×	... ③
○ 자녀가 질병을 이유로 중도에 전역하게 된 경우, 자녀의 병역처분사항을 비공개하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 ④
○ 후보자의 여성 자녀가 혼인했을 경우 그 재산상황은 공개 제외 대상이 아니다.	×	... ⑤

14. (가), (나)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법관으로서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다. 갑의 지인인 을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인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공보를 제출하였다. 을이 후보로 출마한 해당 지역구 주민인 병은 을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 ① 갑이 관행에 따라 △△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되었다면, 갑이 법률 해석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갑이 을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을의 선거공보에 신도록 허락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중립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겠군.
- ③ 을이 체납실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병이 이의제기하였다면, 갑은 △△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을이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병의 이의제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소명자료를 을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이 투표소 등에 공고되겠군.
- ⑤ 병이 을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이의제기하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을에게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겠군.

15.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선거 과정의 전반을 '만들어서 정하는'이라는 의미이다.
- ② ㉡: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토의하고'라는 의미이다.
- ③ ㉢: 상호 견제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그 입장에 선'이라는 의미이다.
- ④ ㉣: 선거 등을 '권한에 의해 통제하거나 지배하는'이라는 의미이다.
- ⑤ ㉤: 거짓 사실로 '명백히 밝혀지는'이라는 의미이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미브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은 환경이지만,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형성된다. 나미브 사막에 살고 있는 딱정벌레는 등판의 미세 구조와 물방울을 입 쪽으로 유도하는 행동을 통해 이 안개를 수분 자원으로 삼는다. 딱정벌레의 등판은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이 교차하는 복합 구조로 되어 있다. 곡면인 등판 표면에는 미세한 돔 형태의 돌기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 돌기의 꼭대기 부분은 물과 결합하기 쉬운 친수성을 띤다. 반면 돌기 옆면과 돌기들 사이의 바닥면은 왁스와 유사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물을 배척하는 소수성을 띤다. 젖음성이란 액체가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일컫는데, 젖음성이 크면 친수성, 작으면 소수성이라고 한다. 딱정벌레의 등판에 나타나는 젖음성의 이질적인 분포는 안개 속의 미세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키는 핵심 원리로 작용한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접촉각과 표면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접촉각이란 액체가 고체 표면 위에 놓일 때, 고체-액체-기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과 이루는 각도이다. 이는 응집력과 부착력 사이의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응집력은 액체 분자끼리 뭉치려는 힘이고 부착력은 액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달라붙으려는 힘이다.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착력이 강해져 액체가 넓게 퍼지며, 접촉각이 90°보다 작아져 친수성을 띤다. 반대로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응집력이 우세해져 액체가 구형에 가깝게 맺히며, 접촉각은 90° 이상이 되어 소수성을 띤다.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접촉각이 90° 이상인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는 20~40mN/m(미터당 밀리뉴턴) 정도로 유리나 금속 같은 친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낮다. 다시 말해 표면 에너지가 높을수록 접촉각은 작아진다.

딱정벌레의 등판에서 물의 포집과 이동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차이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안개가 낀 새벽에 바람이 불어 오면 공기 중의 미세한 물입자는 돌기 꼭대기에 충돌한다. 친수성 부분은 표면 에너지가 높아 물입자가 즉시 흡착되어 응축핵을 형성한다. 이후 물입자와의 지속적인 충돌로 물방울들이 합쳐져 그 부피가 커지는데, 물방울의 무게가 부착력을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진다. 이때 돌기 꼭대기를 제외한 소수성 부분은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 물방울과의 높은 접촉각을 유지하므로 물방울이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을 유지하게 돕는다. 이는 물방울과 표면 사이의 마찰 저항을 극소화하여 미세한 경사의 유도만으로 입까지 쉽게 흘러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들은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을 활용하여 생존을 위한 행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 딱정벌레는 안개가 짙어지면 짧은 시간 동안 물구나무를 서듯 꼬무니를 들어 올려 몸을 지면과 약 23°로 유지하는 '안개 쪼기'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체온을 빨리 손실되게 하고 포식자에게 노출될 위험을 높이지만, 안개 입자가 등판 돌기에 충돌할 확률을 높여 등판의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 입 쪽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 '최적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16.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젖음성의 개념과 특성
- 마찰력과 부착력을 중심으로
- ② 딱정벌레의 대사 작용 과정
- 나미브 사막의 지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 ③ 물질에 따른 표면 에너지의 차이
- 소수성과 친수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 ④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환경 극복 방법
- 먹이 사슬 관계를 중심으로
- ⑤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수분 획득 원리와 방법
- 등판 구조와 특정 행동을 중심으로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리나 금속의 표면 에너지는 소수성 물질의 표면 에너지보다 더 높다.
- ②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는 등판 구조를 활용하여 물입자를 포집하고 이동시킨다.
- ③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는 벵겔라 해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안개를 수분 공급원으로 활용한다.
- ④ 접촉각은 고체 표면 위에 놓인 액체가 기체와 만나는 부분에서, 액체 표면과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 ⑤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돌기 꼭대기에 맺힌 물방울은 그 무게가 부착력보다 작아지는 시점에 굴러 떨어진다.

18.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식자의 위협이 감지되면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서식지로 숨는 행동 전략이다.
- ② 감수해야 할 위험보다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클 때 취하는 행동 전략이다.
- ③ 습도를 높이기 위해 안개와의 충돌 분포를 파악하는 행동 전략이다.
- ④ 체온 손실을 막아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 전략이다.
- ⑤ 열악한 환경에서 종족 번식을 위해 짝을 찾는 행동 전략이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개 속 수분의 포집과 이동을 위해 나미브 사막 딱정벌레의 등판을 모방한 패널에 재료 A~D를 코팅하고자 한다. 재료 간의 젖음성 차이가 클수록 효율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접촉각이 10° 미만인 상태를 '초친수성', 150° 이상인 상태를 '초소수성'으로 정의하고 해당 재료들을 분류하였다. 이 재료들 중에서 돌기 꼭대기, 돌기의 옆면에 코팅할 재료를 선정하고자 한다. (단,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함.)

재료	A	B	C	D
재료를 코팅한 패널과 물의 접촉각	7°	40°	105°	160°

- ① 물입자와의 부착력이 강한 물질인 A는 표면 에너지가 가장 높겠군.
- ② 접촉각이 90°보다 낮은 친수성 물질인 B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겠군.
- ③ 돌기의 꼭대기에 A를, 돌기의 옆면에 D를 코팅하면 수분 포집과 이동에 가장 효율적이겠군.
- ④ 돌기의 옆면에 C를 코팅하는 것보다 A를 코팅하는 것이 유도로의 역할을 하는 데에 더 적합하겠군.
- ⑤ 돌기의 꼭대기에 C를, 돌기의 옆면에 B를 코팅하는 것은 서로 위치를 바꾸어 바르는 경우보다 물입자의 이동 효율이 떨어지겠군.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자들은 철학이 시작된 이래로 생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해 왔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언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철학자 나름의 의견을 언급해 왔다. 이를 정리하면 여러 상황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하이데거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 생각한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이데거는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한다는 의미로 ‘손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손안에 있음’은 문이 평소와 다름없이 잘 열릴 때, 손잡이와 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는 상황과 같다. 이와 반대로 ‘손안에 있지 않음’은 잘 열리던 문이 열리지 않아 손잡이와 문을 의식하게 되는 상황과 같다.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손안에 있지 않음’의 상황, 즉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때 인간이 생각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하이데거처럼, 생각은 기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건과의 만남에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들뢰즈는 생각이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에서부터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낯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생각이 일어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늘 무표정으로 일찍 집에 오던 동생이 매우 늦은 시간에 귀가했다고 하자.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미소를 짓고, 상기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왔다. 이때 동생의 미소, 상기된 얼굴, 흥얼거리는 노래에 관해 해석하게 된다. 이때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석의 결과로 동생의 낯선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 이는 일종의 자기 배려로서, 낯섬과 불편함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전환하려는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생각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무의미’를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과가 붉으면서도 동시에 붉지 않다.’라는 모순된 표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들뢰즈는 무의미가 단순히 의미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모순된 두 의미를 포함해 그 사이에 더 많은 의미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사랑이면서도 사랑이 아니다.’라는 모순의 상황은 단순히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의 사이에 매우 많은 생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의미는 우리에게 의미를 채우게 하여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어떤 존재를 단독적이고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할 때 생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절대자의 명령 앞에 깊이 생각하는 아버지를 예로 들어, 고뇌와 불안의 가치를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자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한다. 교환 가능한 존재와 교환 불가능한 존재가 그것이다. 전자는 아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고, 후자는 아들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아들을 교환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로 여긴 아버지가 딜레마를 끌어안고 깊이 고뇌한 것은 진정한 사유 행위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해 여러 관점들이 지닌 장단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③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절충하여 대안을 언급하고 있다.
- ④ 화제가 지닌 한계를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화제의 개념이 철학적 논쟁을 통해 하나로 정립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이데거는 문이 평소처럼 잘 열리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② 하이데거는 자기 행동에 대해 자기 모습을 의식하는 것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 ③ 들뢰즈는 생각이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다는 뜻으로 비자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 ④ 들뢰즈는 낯선 사건이 발생할 때 인간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여겼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순된 표현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여겼다.

22.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친숙함에서 벗어나 낯섬을 지향하는 것이다.
- ② 평소와 다른 상황에서 느낀 거부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③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기의 행동을 변화하려는 것이다.
- ④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석의 결과를 외면하는 것이다.
- ⑤ 일상생활의 습관적 행동이 가져오는 불편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23. ‘들뢰즈’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상황 1] ㉠은 사랑하는 ㉡에게 자주 선물을 주었는데 그때마다 ㉡는 항상 환하게 웃었다. 늘 하던 것처럼 ㉠은 ㉡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는 ㉠의 선물을 받고 평소와 달리 눈물을 흘렸다.

[상황 2] ㉢와 ㉣는 오랜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이다. ㉢는 멀리 전학을 가는 ㉣에게 ‘우리는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했다.

- ① ㉡의 눈물이 무의미한 것이라 인식하기 때문에 ㉠에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반응을 달레마로 여겨 깊이 고뇌하는 과정에서 ㉠에게 생각이 일어난다.
- ③ ㉡의 눈물을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은 채 어떤 것과 관계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여 ㉠에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④ ㉢의 편지를 읽고 그를 다른 친구로 대신할 수 없는 교환 불가능한 존재라고 인식하여 ㉣에게 생각이 일어난다.
- ⑤ ㉢가 쓴 모순된 표현 사이에 의미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에게 생각이 일어난다.

[24 ~ 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할당 원리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사람들이 특정 욕구를 갖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물품, 지원금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급여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편주의의 밑바탕에는 사회적 시민권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정 욕구를 지닌 모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된다.

한편, 선별주의는 사회적 위험이나 질병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 특정한 욕구를 지니게 된 자 중에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저소득층을 급여 대상자로 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별주의는 자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을 가르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복지 자원을 할당하는 경우도 선별주의에 포함된다. 이때 대상자의 심리적 위축이나 근로 의욕 상실에 유의해야 한다.

(나)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개별적인 방법들이고, 정책 대안은 이 수단들을 다양하게 묶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도시의 교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국자는 지하철 건설, 버스노선 신설, 또는 도로 확장 등 각각의 개별적인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 또 지하철과 버스, 버스와 도로, 지하철과 버스와 도로처럼 개별적 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묶어 여러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정책 수단을 마련할 때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과거의 경험,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사례, 이론적인 연구 결과 등의 범위에서 탐색할 수 있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이나 정책 대안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능률성과 효과성은 상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능률성만 강조하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으나 목표에 미도달할 수 있고, 효과성만 강조하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될 수 있다.

(다)
시청 공청회에서 내년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여 정책 결정이 미뤄졌다. 청년 주거비 지원 예산 내에서 주거비 경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방안과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청년들을 선별하여 차등 지급하자는 방안으로 대립했다.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면 근로 의욕 상실과 같은 부작용 없이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자에 찬성한다.

그 근거로 첫째, 지원받은 청년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시 정책연구소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시는 최근 2년간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원받은 대부분의 청년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서류 미비 등으로 실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막아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둘째,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 박○○ 교수는 해당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제력에 따라 일부 청년층에게만 차등 지급한다면, 수혜자와 비수혜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 물론 부유한 청년에게도 지원할 경우,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소득, 자산 수준 등의 자격 심사를 포함한 여러 행정 비용이 절감되어 이를 지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더 능률성 있는 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균등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찬성한다.

24. 다음은 학생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작성한 질문이다. (가), (나)에서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가)와 관련하여,
- 복지국가의 할당 원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 ①
 - 선별주의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 ②
- (나)와 관련하여,
- 정책 대안이 정책 수단보다 왜 중요할까? …… ③
 - 정책 수단과 정책 대안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④
 - 정책 대안의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에 주목하고, 보편주의가 지닌 장점과 선별주의가 지닌 단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차이에 주목하고,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 달리 특정 욕구를 지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주목하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와 달리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정책 수단의 탐색 범위에 주목하고, 정책에 반영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가별로 비교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정책 목표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함에 주목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추후 논의 사항임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보기>를 참고할 때, (다)를 작성하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논증하는 글은 다양한 논증 요소를 활용하여 쓸 수 있다. 논증 요소에는 내세우는 의견인 주장, 주장을 지지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진실인 이유, 예상되는 반론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있다.

- ① 모든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균등한 월세 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주장으로 제시한다.
- ② 소외되는 청년 1인 월세 가구가 없도록 복지 정책을 실시했을 때의 효과를 밝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 제시한다.
- ③ 차등 지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 ④ 청년 1인 월세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특정 기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다.
- ⑤ 반대 측이 정책의 능률성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 반론으로 제시한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정책 결정과 관련된 행정 이념으로서의 효율성은 국민이 낸 세금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잘 살펴야 할 특징이다. 효율성은 최근 능률성과 효과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즉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거나 사회적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학회 논문 자료 -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보편주의 복지 정책이 지닌 장점을 제시하고 이것이 능률성 차원에서 더 우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급여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능률성과 효과성이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최소의 자원과 비용을 투입할 때 효율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들의 효율성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정책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청년 1인 월세 가구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박을 구체화해야겠어.

[28 ~ 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도자기 공예 체험에 참여하며 쓴 체험 일지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하여 교지에 실으려 함.

○ **초고**
 얼마 전 가족들에게 내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작품을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신청한 것이지만, 돌이켜 보니 그 시간은 나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했다.

공방에 처음 갔던 날 공예가 선생님께서는 도자기 공예에 쓰이는 흙의 종류를 설명해 주셨다. 공예에 쓰이는 흙에는 백자토, 황토, 석기토 등이 있는데 백자토는 발색이 뛰어나지만 모양 변형이 어렵고, 황토는 철분 함량이 높고 열을 가한 후에는 어두운 색을 띠기도 한다. 석기토는 상대적으로 모양 변형이 쉽고 내구성이 강하다. 이번 체험에서는 석기토를 사용하기로 했다.

첫 번째 활동은 ‘물레 성형 기법’을 활용한 꽃병 제작이었다. 물레 성형 기법이란 물레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물레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둥근 형태의 도자기를 빚는 기법이다. 직접 손으로 물레를 돌리는 전통 물레와 전동 모터로 회전하는 전기 물레 중 전기 물레로 체험을 진행하였다. 선생님의 시범을 볼 때와 달리, 조금만 손에 힘을 주어도 흙이 아래로 주저앉거나 찌그러져 계획

한 대로 모양을 잡기 어려웠다. 선생님은 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손에 힘을 빼고 천천히 모양을 다듬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흙이 중심을 잡고 돌아가도록 부드럽게 감싸주었더니 제법 꽃병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흙가래 성형 기법'을 활용해 컵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 흙가래 성형 기법은 점토를 가래떡처럼 길게 늘여 밀판에서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기법이다. 선생님께서는 컵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흙가래는 약간 굽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점토들이 물건의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물레 없이 손으로 직접 만들었더니 모양이 정교하지 않고 삐뚤삐뚤했지만, 나만의 손자국이 남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찼다.

일주일 후, 선생님이 미리 초벌 소성 해두신 내 꽃병과 컵에 재벌 소성을 하기 위해 다시 공방을 찾았다. 소성이란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것이다. 초벌 소성은 도자기를 처음 가마에 넣어 수분을 제거해 형태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작업이다. 초벌된 도자기는 충격에 약해 실제 사용하긴 어렵다. 재벌 소성은 초벌된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 다시 가마에 굽는 것이다. 유약이 녹으면서 도자기 안으로 스며들어 도자기가 단단해지는 것이다. 꽃병과 컵에 유약을 바르면서 완성될 작품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렜다. 한 달 후에 작품을 찾으러 가기로 하고 이번 체험을 마무리하였다.

처음 도자기 공예 체험을 신청했을 때는 흙만 잘 빚고 가마에 넣으면 금방 완성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 도자기는 잘 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28. 다음은 [체험 일지]의 일부이다. ㉠~㉣이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도자기 공예 체험 일지 >

[1월 19일]
-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함. ㉠

[1월 23일]
- 물레 성형 기법으로 꽃병 만드는 활동을 함. ㉡
↳ 흙이 쉽게 주저앉아 모양을 잡기가 어려웠음. ㉢
- 흙가래 성형 기법으로 컵 만들기 활동을 함.
↳ 쌓는 점토의 두께가 서로 약간씩 달랐음. ㉣

[1월 30일]
- 초벌 소성된 도자기에 유약을 바름.
↳ 소성 과정을 두 번 거치는 이유를 알게 됨. ㉣

- ① ㉠을 반영하여, 도자기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제시하였다.
- ② ㉡을 반영하여, 꽃병 제작에 활용되는 물레 성형 기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③ ㉢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떠올린 방법을 제시하였다.
- ④ ㉣을 반영하여, 점토를 쌓아 올릴 때 두께를 달리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 ⑤ ㉣을 반영하여, 초벌 소성과 재벌 소성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29. '초고'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의 순서를 단계별로 서술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공예에 쓰이는 흙의 종류를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다양한 물레의 구조를 각각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 ④ 4문단에서는 흙가래로 만든 여러 도자기의 종류를 서술하였다.
- ⑤ 5문단에서는 재벌 소성을 하는 다양한 이유를 열거하여 서술하였다.

30. 다음은 '초고'를 쓴 학생과 교지 편집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대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집부장: 초고 잘 봤어. 혹시 마지막 문단을 조금 수정해 줄 수 있을까?

편집부장: 마지막 문단에서 ㉠ 부분을 빼고 ㉡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마지막 문단 부분을 수정해 볼게!

처음 도자기 공예 체험을 신청했을 때는 흙만 잘 빚고 가마에 넣으면 금방 완성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나중에 가족들에게 선물할 때 내 손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어때, 괜찮니?

편집부장: 훨씬 좋아! 고마워!

- | | |
|----------------|----------------|
| ㉠ | ㉡ |
| ①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 체험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
| ②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 체험 계기와 관련된 소감을 |
| ③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 체험을 추천하는 이유를 |
| ④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체험 계기와 관련된 소감을 |
| ⑤ 다른 문단과 중복되는 | 체험을 추천하는 이유를 |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서 또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여러 친족들이 역시 그에게 말하였다.

“유 승상과의 약속은 비록 돈독하지만 황제의 명을 어찌하겠습니까? 또한 유생은 결식하며 의탁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달생은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에 이르렀으니 부귀가 빛나고 집안도 화려하니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합니다. 원컨대 황제의 명을 따라 달 씨 집안과의 혼인을 허락하십시오.”

상서가 더욱 고민하면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때,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듣건대, 유생이 아직도 경의 집에 머물러 있어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망설이고 있다 하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만약 국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먼저 정옥을 참수하고 상서의 일족을 멸하겠노라.”

황제의 명이 이와 같이 급박하니 무슨 다른 계책이 있겠는가? 상서가 어쩔 수 없이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결정하니 부인과 여러 친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상서는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또한 유생과의 혼례 날이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남자가 이 말을 듣고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 부모를 찾아 뵈고 말하였다.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는 것이 예전의 예에 있습니까?”

상서는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였다. 부인이 남자를 꾸짖어 말하였다.

“너는 규방에 있는 여자로서 부모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지, 이처럼 하소연하는 일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너는 어찌 여기에 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울며 대답하였다.

“아버님께서 전날에 유 승상과 금석처럼 굳게 정혼을 하시고 또한 저로 하여금 그 승상 앞에서 예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유 승상께서도 역시 저에게 옥지환을 주시면서 ‘이것으로써 너는 마침내 유 씨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유 씨의 가문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달목 집안과 혼인을 결정하셨다고 하니 이것이 사실입니까?”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말하였다.

“다른 방법이 없다. 황제께서 하교(下敎)*하심이 이와 같으니 형세상 어찌할 수가 없다.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어찌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

남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만약 애초에 유 승상 댁과 정혼한 일이 없었다면 제가 규방에 있는 몸으로 어찌 이것저것 가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뵈고 당돌하게 아뢰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에 예를 잃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황하가 아직도 허리띠처럼 되지 않았고, 태산도 역시 솟돌처럼 되지 않았으니 원컨대 부모님은 예전의 약속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제가 오랫동안 규방에 있으면서 경사(經史)를 조금 읽었으니,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A] 제가 이미 유 승상 댁에 예를 행하였는데 또 달 씨 집안과 혼인을 한다면 이것은 두 남편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죽어서 의를 지키지 못한 혼령의 신세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살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 죽어서도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충신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어려워하지 않고 열녀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컨대 부모님은 천금과 같은 귀하신 몸을 보존하시고 소녀의 목숨을 구하지 마시고 황실의 벌에서 벗어나소서.”

이후로부터 남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일어나지 않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유생은 방 상서의 집을 떠나고, 방 남자는 달생과의 혼례일에 자결한다. 유생은 꿈을 통해 방 남자의 죽음을 알게 되고, 그리움에 방 남자의 무덤을 찾았다가 설핏 잠이 든다.

꿈에서 깨어나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무덤을 살펴보니 무덤이 갈라지고 남자가 다시 살아났다. 유생이 놀라고 기쁘고 정신이 없어서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고 남자와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다.

잠시 뒤에 남자가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였다.

“저와 남군의 인연이 이렇게 얽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 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저승에 몸을 맡기고도 원한을 풀지 못 하였는데, 상제께서 저의 정절을 보시고 후토 부인에게 명하여 저를 다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남군과 끊어졌던 속세의 인연을 맺게 해 주셨으니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생도 감사의 절을 하고 평소 고생한 일과 남자를 그리워한 정을 다 털어놓고 서로 함께 슬퍼하였다.

남자가 말하였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났으니 부모님을 찾아뵈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달 씨 가문에서 제가 다시 살아 난 것을 안다면 예전의 악행이 다 끝나지 않아 반드시 침범할 것입니다. 황제께 이 일을 아뢴다면 부모님께 화가 미칠 것이니 이렇게 되면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선 깊은 산속에 숨어서 달 씨 가문의 권세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을 찾아뵈고 남군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작자 미상, 「유생전」 -

* 하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

3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제는 유생이 방 상서의 집에 머문 것을 알았다.
- ② 방 상서는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부인을 꾸짖었다.
- ③ 유생은 그리워하던 방 남자를 다시 만나 눈물을 흘렸다.
- ④ 방 남자는 자기의 환생이 달 씨 가문에 알려질 것을 염려했다.
- ⑤ 젊은 나이에 한림학사가 된 달생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32. [옥지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 상서가 방 낭자에게 물려준 물건이다.
- ② 유생이 방 낭자에게 보낸 사랑의 표시이다.
- ③ 방 상서 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거물이다.
- ④ 유 승상이 유생과 방 낭자의 혼인을 허락한 증거물이다.
- ⑤ 달생에 대한 방 낭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는 물건이다.

3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을 찾아온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함을 언급하고 있다.
- ③ 자신이 과거에 범한 실수를 해명하고 있다.
- ④ 도덕적 가치를 내세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⑤ 문헌의 내용을 들어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생전」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환상적인 요소를 지닌 작품이다. 여성 주인공은 사회적 권력 구조를 따르려는 주변 인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의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여성 주인공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에 의해 시련을 겪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서사의 흥미를 강화한다.

- ① ‘달 씨 집안과의 혼인을 허락하’라고 여러 친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적 권력 구조를 따르려는 것이겠군.
- ② ‘황제가 또 교서를 내려’ 달목 집안과의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방 낭자가 겪는 시련에 해당하겠군.
- ③ 상서가 ‘혼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이 강요한 결연이라는 문제를 극복한 것이겠군.
- ④ 낭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는 것은 주위의 반대에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겠군.
- ⑤ ‘후토 부인에게’ ‘인간으로 환생시’키라고 ‘상제’가 명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환상적인 요소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모의 등골이 빠진 등록금으로 다니는 삼류대학은 금의(錦衣)가 아니라 남루였다. 남루는 교복까지 언니 것을 물려 입어야 했던 고교 시절로 끝내고 싶었다. 그래도 낙방은 낙방이니까 체면상 실의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 어머니가 넌지시 고맙다, 네가 효녀다라고만 속삭이지 않았다면 머나먼 미국 땅으로 시집 같은 거 안 갔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그녀에게 비굴하고도 은근한 목소리로 고마워했을 때 그녀는 있지도 않은 희생정신을 들킨 것처럼 느꼈고 그 느낌이 여간 고약한 게 아니었다.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단 말인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한테 속아서 희생당한 것을 빨리 만회하고 싶었다. 꼴도 보기 싫은 식구들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지글거릴 때 친척의 소개로 미국서 참한 신부를 물색하러 나온 신랑을 만나 단시일 안에 뜻이 맞아 혼사가 이루어졌다. 서로 맞아떨어진 건 뜻이라기 보다는 조급증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어머니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한참이나 쥐고 있던 손의 거칠고 끈적한 습기를 잊지 못했다. ㉡ 하루속히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미국으로 시집간 후 ‘앤’으로 불린 후남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교류하며 유대감을 느끼는 등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다. 하지만 곧 후남은 가족을 그리워하게 된다. 그 무렵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한국을 찾아 이모네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어머니가 저만치 짧게 커트한 백발을 휘날리며 그녀를 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아아 저 소리, 생전 녹슬 것 같지 않게 새되고 억척스러운 저 목소리, 그녀는 그 목소리를 얼마나 지켜워했던가. 밖에서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나 동무 집에서 같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온 동네를 악을 악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저 목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어디론지 숨고 싶었다. ㉢ 왜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을 꼭 밥 먹어라는 붙이는지. 하긴 끼니때 아니면 찾아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소리가 꼭 끼니나 챙겨 먹이면 할 도리 다했다는 소리처럼 들렸다. 아침에 늦잠 자는 그녀를 깨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교 늦겠다 어서 일어나라 하면 될 것을 꼭 후남아 밥 먹어라로 깨웠다. 급한 건 학교가 아니라 밥이라는 듯이. 어렸을 때는 밥 먹어라 소리가 그리도 듣기 싫더니 자라면서 후남이라는 이름을 더 싫어하게 되었다. 학교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그녀를 한 번 볼 거 두 번 보면서 이상하게 웃는 것도 기분 나빴는데 너 사내동생 봤냐? 혹은 너 몇째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어른도 있었다. 그녀의 동기간들은 다 병자 돌림이었다. 언니들 이름에도 병자를 넣어 지었는데 그녀의 이름만 얻어온 자식처럼 향렬자에서 제외시켰다. 밑으로 사내동생 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어머니가 어쩌다 딸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도, 밑으로 사내동생을 줄줄이 둘이나 본 신 통한 내 새끼, 하는 식이었다. 그럼 난 오직 사내동생을 보기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처음부터 자식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은 부모,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 둘 다 싫었다.

“후남아, 밥 먹어라. 후남아, 밥 먹어라.”

백발의 어머니가 젊고 힘찬 악을 악을 쓰고 있었다.

하여튼 우리 엄마 밥 좋아하는 건 알아줘야 해. 아들자식을 원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딸들 앞에서 아들을 특별 [A] 대우할 때도 변명처럼 말하곤 했다. 야아는 제삿밥 떠놓을 애니까라고. 아아, 가엾은 우리 엄마. 그녀는 달려오는 엄마를 한길 한가운데서 맞이했다.

“어디 갔었냐, 밥 뜯 드는데. 야아는 꼭 끼니때면 싸돌아다니 다니까.”

그것도 어려서 많이 들던 소리였다.

㉔ “엄마 나 알아? 나 후남인 거,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

“야아가 에미를 놀리네. 밥 다 타졌다. 어여 가자.”

아닌 게 아니라 집 안에선 밥 뜯 드는 냄새가 구수하고, 부뚜막 앞에 서 있던 이모와 조카며느리와 그 밖의 낯선 여자들이 신기한 얼굴로 제각기 한마디씩 했다.

“미국 딸 보고 정신이 돌아오셨나 봐요. 안 그래요? 아주머니.”

㉕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진작 오시지.”

“정신이 돌아온 건지, 더 달아난 건지 윈. ㉖ 난 십년감수했다. 귀한 손님 왔으니까 반찬 한 가지라도 더 챙겨오려고 야아네로 건너가서 찌개 간도 보고 나중에 고구마도 좀 썰오라고 일르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뭐냐. 마당에도 연기가 자욱하고. 불난 줄 알았어. 이 화상이 이제 안 하던 불장난까지 하니 어쩔꺼나 한달음에 달려와 보니 멀쩡하게 밥을 짓고 있지 뭐냐. 곧잘 지었어. 안 쓰던 무쇠솥도 깨끗이 가셨나 봐. 밥에 녹물이 하나도 안 든 거 보렴.”

녹물은 안 들었는지 몰라도 밥 뜯 드는 냄새에는 무쇠 냄새도 섞여 있었다. 매캐한 연기 냄새도, 연기가 벽의 균열을 통과하면서 묻혀온 흙냄새도, 그 모든 냄새와 어우러진 밥 뜯 드는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아아 이 냄새, 이 편안함, **몇 생을 찾아 헤맨** 게 바로 이 냄새 아니었던가 싶은 원초적인 냄새, 이 열치열이라더니 음식 때문에 뒤집힌 비위를 부드럽게 위로하는 이 편안한 냄새. 어머니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이리로 왔을까. 나는 또 생전 처음 말아보는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가.**

- 박완서, 「후남아, 밥 먹어라」 -

35.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상징적 배경을 통해 인물 간 갈등 해소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반복적 행위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⑤ 의문형의 진술을 통해 인물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36. ㉑~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어머니’에 대한 ‘후남’의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 ② ㉒: ‘후남’이 당시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㉓: ‘어머니’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후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어머니’의 인지 상태를 확인하려는 ‘후남’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㉕: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는 주변 인물의 추측을 보여 주고 있다.

37. ‘이모’가 ㉖를 통해 전하려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억에 의존해 현재의 막막함을 피하고자 한다.
- ② 몹시 놀란 일을 겪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③ 돌발적 상황에서도 잃지 않은 평정심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④ 예상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만족감을 부각하고자 한다.
- ⑤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부각하고자 한다.

38.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자아 정체성의 위기와 확립’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가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개인은 사회 구조 속에서 부여받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이때 경험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차별은 심리적 저항과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1970~80년대는 경제적 궁핍과 남아 선호 사상,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에서 여성 개인의 존재 가치가 약화되고 가족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었다.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개인에게 심리적 위기로 작용하면, 개인이 가족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들과의 유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 관계 단절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된다.

- ① 후남이 가족에게 ‘본때를 보여 주고 싶은 마음’으로 미국행을 선택한 것에서,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의 어려움이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② 후남의 이름에 ‘밑으로 사내동생 보’려는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다는 것에서, 당시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③ 후남이 ‘고유한 존재 가치 없이 태어난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가 여성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④ 후남이 ‘후남아, 밥 먹어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억척스럽다’고 느낀 것에서, 사회에서 부여받은 여성의 역할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⑤ 후남이 ‘몇 생을 찾아 헤맨’ ‘이 냄새가 왜 이렇게 좋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회복이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준다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화 아깝도다 아름다운 봄이 간다
이 봄이 분주하여 가는 줄 몰랐더니
서글퍼서 창을 여니 화초가 난만하다

[A] ┌ 홀연히 일어서 동산으로 돌아드니
└ 실버들 가지 우에 피플 소리 낭자하고
┌ 구슬발 수놓은 막에 제비 소리 즐거웁다
└ 아름다운 꽃 사이로 나비쌍쌍 춤을 추고
(중략)

향기론 목단화는 담 안에 피었더니
아침 해 떠오르니 더욱 곱게 잠겼구나
달빛 아래 미인같이 연연한 고운 빛이
서왕모의 반도화요 처사가의 운명화라
동풍에 휘날리니 꽃향내 진동한다

[B] ┌ 수정같은 이슬방울 거울같이 비쳤으니
└ 청춘 미인들이 몸단장을 고루는지
달 속의 고운 선녀 상명산에 올랐는 듯
봄을 맞아 부귀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라
하늘거리는 저 기상은 꽃왕이 분명하다
궁중 미인 삼천중에 뉘 아니 무색하라

[C] ┌ 봄바람에 향기 따라 춤추는 나비런가
└ 봄 경치와 연분이니 나비야 가지 말아
꽃바람도 전해 온다 봄 소식 물어보자
아마도 봄 다 가면 이 꽃이 이울리라*
봄철 석 달은 반나마 지났으니
사시장춘 아니어든 어이 길이 보잔 말가
봄의 신 조화로되 길이 불 길 바이 없다
한 폭 편지지에 전생 마음 기록할 제
부귀 영화를 완전히 그려내니

[D] ┌ 나 앉은 서안(書案)* 우에 병풍같이 둘러놓고
└ 문밖을 안 나서니 봄 석 달이 한가지라
비스듬히 누워서 꽃가지 볼 양이면
봄철이 다 가도록 떠날 날을 모르네
그리고 또 그린들 임 그리기 어렵구나
마음도 나비 되어 승그리고 우뚝 앉아
꽃 안 지는 봄 그림은 이 또한 소회로다
제아무리 잘 그린들 못 그릴 건 임이구나
잘 그리는 모연수는 왕소군의 원수되어
천고에 남은 한을 통곡 중에 논했거늘
그리긴들 어이 하고 생각인들 어이 하리
수심으로 붓을 잡고 한숨으로 채색하니
임의 모양 그려지고 내 모양 그려지네
임 없이 그린 그림 긴 상사만 남았고나

[E] ┌ 그리고 또 그리니 긴 상사만 그렸고나
└ 이 붓도 원수같이 그림도 명수로다
그리던 이내 그림 언제나 다 마쳐서
화장금금(花帳錦衾)*에 그림같이 마주 앉아
그림 속에 긴 상사와 태우던 내 간장을
봄날의 빙설같이 다 끌어볼거나

- 작자 미상, 「석춘사(惜春詞)」 -

* 이울리라: 꽃이나 잎이 시들 것이다.
* 서안: 책을 엮는 책상.
* 화장금금: 꽃처럼 아름다운 휘장과 비단 이불.

(나)

눈물은 눈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가? 눈에 있다면 물이 웅덩이에 고여 있는 듯한가? 마음에 있다면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가? 눈에 있지 않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눈만이 주관하니 눈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마음에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자체로 눈물이 나오는 일이 없으니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마치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곳으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나온다면 저것은 다 같은 물의 유(類)로서 아래로 흐른다는 성질을 잃지 않되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데도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이치가 있단 말인가.

비유하자면 마음은 땅이고 눈은 구름이다. 눈물은 그 사이에 있으니 비와 같다. 비는 구름에도 땅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비가 구름에서 생기고 땅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하늘 위에는 늘 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비는 땅에서 생기고 구름은 관여하지 않는다면, 비는 어찌서 하늘로부터 내린단 말인가? 이는 기(氣)의 감응에 불과할 따름인즉, 눈물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또 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릇 감응한다는 것은 사람과 귀신 사이가 멀어도 서로 통할 수 있어 제사를 드리면 선조들이 오므로 옛사람들은 다 성실하고 돈독히 제사를 드렸다. ... (중략) ... 제사를 드릴 때 곡만 하고 눈물이 없는 것은 이미 느낌이 없는 것인데 어찌 귀신의 응함이 있으리오? 입으로는 울부짖으나 마음속으론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진실되지 않음만을 볼 뿐이니 그 귀신이 다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리오.

내게 상사(喪事)가 생겨 초빈(草殯)*으로부터 계속 묘를 지킴에 어떤 때는 한 번 곡하고도 눈물이 나다가 어떤 때는 천백 번 곡해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자리에서 곡함에 어찌 슬프지 않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겠으며, 자리에 있지 않아 곡하지 않음에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신*과 인간 사이의 이치는 진실로 아득하나, 느낌도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일은 없다. 여기의 느낌으로 저기의 응함을 알 수 있을즉 다만 잠자리에 들고 음식을 먹을 때에만 서로 통하는 게 아니다. 천 리를 떨어지고, 여러 해를 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거문고, 피리가 가득한 자리에 있을 때, 일 처리를 하느라 물건이 책상 위에 수북할 때, 술을 마셔 내 몸을 잊을 때, 바둑, 장기에 정신을 팔고 있을 때 이 모든 경우는 다 눈물과 관계없지만 무언가에 저촉됨이 있으면 느낌이 있게 된다. 느낌은 눈물과 도모하는 건 아니지만 눈물은 느낌을 따라 나오니 신이 응하게 되는 것은 향을 사르고 처연해지는 제사 때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자리와 자리 아님, 곡함과 곡하지 않음을 또한 논해 무엇하리오.

- 심노승, 「눈물의 근원[淚原]」 -

* 초빈: 시신을 입관한 후 장례 지낼 때까지 안치하는 것.
* 신: 죽은 아내의 혼령.

3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과의 일체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연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40.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날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B]: 꽃을 미인에 빗대어 봄꽃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C]: 자연물을 호명하며 봄날이 가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 병풍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외부 공간에서 노니는 즐거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E]: 입과 함께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입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41.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은 수업 시간에 「눈물의 근원[淚原]」을 읽었다. 이 작품은 ‘원(原)’이라는 문체로 의문점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며 본질을 찾고 캐내어 의견을 밝히는 글이라고 한다. 글쓴이는 ㉠ 눈물이 눈[眼]과 마음 중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 의문문을 반복함으로써 눈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 눈과 마음 중 어느 한 곳에 눈물이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각각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다. 그런 다음 ㉣ 눈물이 흐르는 상황을, 기(氣)의 감응과 연관하여 설명하며 눈물은 마음이 없어도 나온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 눈물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사유 과정을 통해 밝히려고 한 점에서 글쓴이의 통찰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모두 일상적 경험 속에서 부재하는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입과 만나 연정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아내가 죽은 후 장례 의례와 일상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을 통해 이에 담긴 감정적 반응의 이치와 의미를 다양하게 고찰하고 있다.

- ① (가)는 ‘그리고 또 그리’면서 화자의 애태우던 마음을 ‘그림 속에’ 담았다고 한 점에서, 입과의 사랑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는 ‘이 모든 경우에’ ‘무언가에 저촉’되면 ‘느낌이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적 반응의 이치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는 ‘입 없이 그린 그림’에서, (나)는 ‘초빈으로부터 계속 묘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대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는 ‘수심으로 붓을 잡고’ ‘입의 모양 그려’낸다는 점에서, (나)는 ‘곡하지 않음에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는 ‘분주하여 가는 줄 몰랐’던 ‘봄철 석 달’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고 말한 점에서, (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이치’가 ‘진실로 아득하’다고 한 점에서, 모두 구체적 경험을 통해 대상이 느낀 상실감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순(順)아 너는 내 전(殿)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
내사 언제 네 전에 들어갔던 것이냐?

우리들의 ㉠ 전당(殿堂)은
고풍한 풍습이 어린 사랑의 전당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水晶) 눈을 내려 감아라.
난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를 고르려나.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병어리였다.

청춘!
성스런 촛대에 열(熱)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닥치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안은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려나.

이제
네게는 삼림 속의 아늑한 호수가 있고,
네게는 준험한 산맥이 있다.

- 윤동주, 「사랑의 전당」 -

(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니 어미
누가, 자식 놈 흥이라도 볼까봐
끼니때 돌아오면
대문 꼭꼭 걸어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쫄쫄쫄 씹혀서 버린 ㉡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피어,
꽃핀 나 불러 말고
쫄쫄쫄 오그라드는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 박성우, 「보라, 감자꽃」 -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직유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와 대상이 머물다 떠나야 했던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약속한 공간이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가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과 달리 화자와 대상이 교감했던 공간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대상과 함께 고통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에서 화자는 특정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가)에서 화자는 자신들에게 닥칠 시련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당부의 말을 하며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 (나)에서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와 의인화된 자연물인 두 화자가 나타난다. 의인화된 자연물인 화자가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에게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화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 ① (가)에서 ‘언제’ 서로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인지도 몰랐다는 점에서, 화자와 순은 함께 시련에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순에게 ‘불이 꺼지기 전’에 ‘앞문으로 내달리라고’ 말한 점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말을 건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순에게는 ‘아늑한 호수가 있고’, 화자에게는 ‘준험한 산맥이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순은 서로 가야 할 길이 다를 수 있군.
- ④ (나)에서 ‘칠순’이 된 어머니를 ‘자주 보라’고 반복한다는 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에서 ‘꽃핀 나’가 ‘니 홀어미’라고 지칭하는 점에서, 자연물을 관찰하는 화자 이외의 다른 화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